

## [묵상과 영적성숙]

### ⑤ 묵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강준민 목사 / 1998 / 페이지수: 2

#### ‘믿는’차원, ‘아는’차원

신앙 성장의 근본은 영적 지식에 있다. 열심, 성실, 충성 그리고 행함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이 지식이요, 이것들 모두의 기초가 되는 것이 지식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내가 증거 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롬 10:2)고 말했다. 올바른 지식을 겸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다. 신앙은 진실과 열심의 문제 이전에 지식의 문제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호 4:6)라고 안타까워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된 지식을 갖는 것이다.

#### 모든 지식의 근본은?

예레미야는 장차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했다.

“내가 또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렘 3:15).

참된 목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지식과 명철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지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호 6:6).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 하느니라”(잠 1:7)고 말씀하고 있다. 또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이니라”(잠 9:10)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인간의 성숙과 행동 양식은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비례한다.

한 사람의 비전의 크기와 인생의 크기는 그가 누구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크게 알고 있으며, 믿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은 결정된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게 된다(단 11:32).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엡 4:13).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이다(벧후 3:18).

#### 묵상 통해 하나님 알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이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간다.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갖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데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맛보아 알아야 한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환희의 춤을 출 수 있어야 한다.

말씀묵상은 하나님을 ‘믿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는’차원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준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내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경험하는 차원으로 올려 주는 것이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경험적으로 아는’것을 의미한다. 부부관계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 아는 것과 같은 차원이다.

말씀묵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영적 지식을 통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다. 지혜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식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영적 지식을 삶에 직접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지혜, 그 지혜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만 주어진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요 1:1~3). 사울은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삼상 15:23).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의 끈을 놓지 않았다(행 6:2~4).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호 6:3).

\* 출처 : 도서출판 두란노